



한국, 차세대통신망 국제표준화 주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etri.re.kr>, 원장 임주환) 표준연구센터(센터장 이형호)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차세대통신망 표준 분야의 ITU-T SG13(Study Group 13)회의에서 새로이 2명의 에디터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명실상부 우리나라가 차세대통신망(NGN)에서 IPv6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에디터(Editor): ITU-T 국제표준화 그룹 각 영역(Question)에서는 목표에 부합하는 표준화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각각 표준화 문서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

※차세대통신망(NGN): 전화, 인터넷, 무선망을 단일 공통망으로 통합하여 음성과 데이터통신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IP 패킷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IP 주소 체계,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

금번 차세대통신망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ITU-T SG13 회의에서 ETRI에서 제안한 두 개의 표준 권고안 작업 계획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오는 2006년 말까지의 국제 표준 권고안 작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되었다. 차세대통신망에서의 IPv6 적용을 표준화 작업 영역으로 하는 ITU-T SG13/Q.9(라포터: 김형준(ETRI 표준연구센터)) 회의에서는 새로이 승인된 표준 권고안 작업 계획의 에디터로 차세대인터넷표준연구팀의 박정수 선임연구원과 홍용근 연구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를 통해 ITU-T에서의 IPv6 분야 국제 표준화 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박정수 선임연구원이 에디터를 맡은 "IPv6기반 차세대통신망에서의 서비스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권고안 작업 계획은 차세대통신망 환경에서의 IPv6 요구사항 및 메커니즘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홍용근 연구원이 에디터를 맡은 "차세대통신망을 위한 IPv6 멀티호밍 프레임워크" 표준 권고안 작업 계획은 차세대통신망 환경에서의 IPv6 멀티호밍 필요성 및 메커니즘, 그리고 차세대통신망을 위한 IPv6 멀티호밍 적용 분야에 관한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2월에 개최된 시그널링 요구사항 및 프로토콜 표준을 제정하는 ITU-T SG11 회의에서 표준연구센터의 안재영 선임연구원이 Q.7(차세대통신망에서의 망 접속 지원을 위한 시그널링 및 제어 기술 분야)의 의장격인 라포터(Rapporteur)로 선임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BcN이나 와이브로 등을 지원하는 유무선 통합 접속 제어기술은 물론이고 RFID나 센서 등을 활용하는 유비쿼터스 망 접속 기술까지도 통합하는 선행 기술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라포터(Rapporteur) : ITU-T 국제표준화 그룹 각 영역(Question)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의장격에 해당하는 직책

ITU-T SG11의 부의장이자, IPv6 포럼 코리아의 의장이기도 한 ETRI 표준연구센터 이형호 센터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차세대통신망 분야에서 IPv6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루었다"며 "정부의 IT839 정책의 3대 인프라에 해당하는 광대역통합망(BcN)과 차세대인터넷(IPv6), 나아가 전파식별(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간의 연계 표준화 주도를 통해 선행 기술의 IPR(지적재산권) 조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차세대통신망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ITU-T SG13 회의에서 ETRI에서 제안한 두 개의 표준 권고안 작업 계획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오는 2006년 말까지의 국제 표준 권고안 작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되었다.